



先·後願關係에 있는 2 發明이 同一發明이라 判斷된 事例

〈日本高裁 1982年 6月 23日 判決, 1979年(行ケ) 第14號〉

1. 事件概要

가. 原告가 特許出願을 한 發明은 固定子側에 立相制御回路를 갖는 多相誘導電動機에 있어서 直流制動回路를 形成하는 2相의 固定子卷線의 경우 1相의 固定子卷線 2R에 사이리스터등 1個의 補助制御素子 6R를 並列로 接續하여 制動時 그 固定子卷線과 여기에 相隣하는 固定子卷線 2S에 대하여 直列로 挿入된 사이리스터등의 主制御素子 3 및 上記 並列接續의 補助制御素子를 電源電壓의 半사이클에 交互點弧하도록 한 것을 特徵으로 하는 多相誘導電動機의 制御裝置에 關係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本件 出願을 拒絕한 特許廳의 審決에서 引用한 先願의 發明을 要約해 보면 任意로 된 두개의 相의 固定子線에 各各 補助制御素子를 接續한 點이 本件 發明과 相違하다.

나. 原告는 前記의 審決을 不服으로 出訴하여 本件 發明은 1相의 固定子卷線에만 補助制御素子를 接續한 것으로서 任意의 2相의 固定子卷線에 接續하는 先願發明과 比較하여 經濟性を 向上시키고 또한 制動運轉에서 驅動運轉으로 變化하는 過渡狀態에서 電源短絡을 일으킬 憂慮가 없다고 主張하였다.

2. 判決要旨

判決은 下記의 理由에서 原告의 請求를 棄却하였다. 即 ① 直流制動效果를 높이기 위한 補助制御素子를 接續하려는 固定子卷線의 相의 數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電動機에서

要求되는 制動效果의 程度에 따라 當業者가 任意로 選擇할 수 있는 事項이다.

② 證據 및 辯論의 全趣旨에 의하면, 사이리스터를 使用하는 電動機制動裝置에 있어서 사이리스터의 同時導通에 의해 電源短絡을 이르는 것은 當業者가 設計上 언제나 留意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電源短絡을 考慮하여 1相에만 接續할 것인가, 電源短絡防止는 他의 手段에 맡겨 2相으로 接續하여 制動效果의 向上을 期할 것인가는 設計에서 當業者가 任意로 選擇할 수 있는 事項이다.

③ 原告가 主張하는 電源短絡防止의 效果는 本件 明細書에 記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本件 發明은 補助制御素子の 附加에 의하여 電動機의 制動特性을 向上시킨 點에서 先願發明과 軌를 하나로 하는 것이며, 單純히 그 補助制御素子를 1個 設置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없다는 것에 比較하여 制動效果를 實用성이 있는 範圍에서 改善한 程度의 것이란데에 歸結하여 先願發明과 別異의 發明을 構成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論評

이 判決은 本件發明과 先願發明과의 形式的 相違點, 本件 出願前의 技術水準 및 本件 明細書中の 效果를 記載한 것을 綜合적으로 勘察하여 先·後願發明의 同一性を 判斷한 것으로서 特許法 第39條의 規定適用에 관한 判斷의 하나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